

산경논집 제 37 집 (2016年 8月)  
The Journal of Industry and Economy, Vol.  
37, August 2016.

논문 접수일 : 2016. 07. 11.

논문 심사일 : 2016. 08. 16.

게재 확정일 : 2016. 08. 23.

## 제주도 무역진흥을 위한 효율화 모색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Efficiency seeking for trade promotion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김 희 철\*\* (Hee-Cheol Kim)

#### < 목 차 >

I. 서론	V. 시사점
II. 우리나라의 수출구조 및 선행연구 분석	참고문헌
III. 제주지역 수출입 현황	Abstract
IV. 수출활성화를 위한 정책	

주제어: 제주도, 수출활성화, 수출기업, 수출진흥정책, 수출전문인력

\* 이 연구과제는 JCC그룹 발전기금으로 수행되었음

\*\*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교수 (관광과경영경제연구소 전임연구원),  
khc3155@jejunu.ac.kr

## I. 서론

최근의 글로벌 경제여파로 우리나라의 2015년 수출실적은 부진한 해였다. 2016년에도 우리나라의 수출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며, 2015년 나타난 우리나라의 수출 저해요인으로는 세계경기 둔화, 유가하락, 세계교역 축소 등의 이유로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인 유효수요 부족으로 국제 유가하락에도 불구하고 단가 하락으로 인한 구매력 평가, 세계교역 증가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우리나라의 수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수출부진은 결과적으로 제주도의 수출도 부진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15년 제주지역의 수출은 2014년보다 증가한 118백만 달러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세에도 수입이 증가하여 334백만 달러가 수입이 되었다. 당연히 수출보다 수입이 증가하여 무역수지는 216백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제주도의 교역 현실이다. 2015년 까지 제주지역은 지속적인 수출 확대를 위한 기반 확충과 수출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제주도는 다양한 수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중소수출기업에게 수출의 활성화 기회를 제공하여 왔다. 하지만 제조기업의 기반이 부족한 것이 제주도의 현실이다. 제조기업이 부족한 제주도로서는 제주지역의 제조기업만으로는 수출을 증대시키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상황이며, 현실적으로 기업자원이 부족한 제주도로서는 다양한 수출활성화 정책을 모색하는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제조기업의 기반시설이 많은 곳과 제주도와 같이 기반 제조업이 부족한 지역은 그 지원정책만으로는 정책의 성과를 측정할 수는 없다.

제주도는 제조기업의 기반이 부족함으로 앞으로는 제주도만의 제화를 생산하여 수출을 도모할 수 있는 제조업 육성정책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의 실정에 맞는 무역진흥정책을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제주에 맞는 무역진흥정책을 통한 세계일류상품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행, 재정적 지원기반 강화하고 제주지역의 수출선도기업으로서 역할 수행할 수 있는 기업으로 향상, 지역의 고용증대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 Ⅱ. 우리나라의 수출구조 및 선행연구

### 2.1.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현황

#### 2.1.1 중소기업 현황

우리나라 중소기업 범위는 근로자수 300인 미만(또는 자본금 80억 이하)을 중소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중국은 우리와는 다른 정의 중소기업을 정의하고 있어 중소기업 범위는 상이한 면이 존재한다. 미국·일본·중국 등의 주요 국가들은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구분하고 있으며, 인구수에 따라 근로자수의 기준이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의 경우 근로자수 2,000인 이하를 중소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의거 중소기업은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에 따라 분류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중소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이거나 자본금 80억 이하인 기업으로 중소기업을 정의 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의 통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는 2013년을 기준으로 하여 총 341만 여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에 비해 대기업은 3,130개로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업의 수로 살펴보면 전체의 0.1%에 해당하는 것이 대기업이다. 이처럼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기업

의 99%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표 1>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비율

구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사업체수(개)	전체	3,125,457	3,234,687	3,354,320	3,418,993
	중소기업	3,122,332	3,231,634	3,351,404	3,415,863
	[비중,%]	[99.9]	[99.9]	[99.9]	[99.9]
	대기업	3,125	3,053	2,916	3,130
	[비중,%]	[0.1]	[0.1]	[0.1]	[0.1]
종사자수(명)	전체	14,135,234	14,534,230	14,891,162	15,344,860
	중소기업	12,262,535	12,626,746	13,059,372	13,421,594
	[비중,%]	[86.8]	[86.9]	[87.7]	[87.5]
	대기업	1,872,699	1,907,484	1,831,790	1,923,266
	[비중,%]	[13.2]	[13.1]	[12.3]	[12.5]

자료 : 중소기업청, 조사통계시스템.

### 2.1.2 지역별 제조기업 현황

중소제조기업은 2013년 기준으로 전체 117천 여개로 전체기업의 99.4%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기업은 630개로 0.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액에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체 52.4%를 차지하여 중소기업보다 더 큰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비율은 전체기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 경기도에 35.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어서 경남 10.3%, 경북 7.7%, 충남 7.6%, 충북 6.1%, 인천 6.1%, 서울 5.7%의 순으로 중소기업이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제주지역은 0.1%의 비중

이 나타난다.

이는 전국에서 제일 적은 위치로서 제주도에 수출을 위한 제조기업 등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2> 제조기업의 비율(2013년 기준)

지역	사업체수(개)	비중(%)	부가가치(백만원)	비중(%)
전국	117,970	100.0	248,183,419	100.0
서울	11,941	10.1	14,116,888	5.7
부산	7,732	6.6	11,965,887	4.8
대구	6,493	5.5	9,247,662	3.7
인천	8,556	7.3	15,064,055	6.1
광주	2,003	1.7	4,496,151	1.8
대전	1,641	1.4	4,356,279	1.8
울산	2,186	1.9	10,864,133	4.4
경기	42,137	35.7	77,465,556	31.2
강원	1,516	1.3	3,299,772	1.3
충북	3,805	3.2	15,242,962	6.1
충남	4,987	4.2	18,923,623	7.6
전북	2,832	2.4	7,779,469	3.1
전남	2,667	2.3	9,105,210	3.7
경북	7,611	6.5	19,000,799	7.7
경남	11,252	9.5	25,498,768	10.3
제주	365	0.3	365,269	0.1

자료 : 중소기업청, 조사통계시스템.

## 2.2. 선행연구

중소기업에 수출지원에 대한 연구로 이성봉(2013)의 연구에 따르면 중소

기업 수출지원체계의 전반적인 특징은 다수 정부부처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내용의 많은 지원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서 정부의 지원에서 필요한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중소기업 수출지원체계에 대한 국가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고, 둘째, 기관들의 지원사업에 대한 전문화와 경쟁을 통한 중소기업 수출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밝히고 있다. 셋째, 범정부차원에서 수출지원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평가가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신열(2014)의 연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의 성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첫째, 중소기업의 창업부터 성장, 발전까지 지원하면서 성장 단계별로 조정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자치단체마다 대부분지원업종이 비슷하여 지역산업특화 등 전략적 산업육성이 필요하고 셋째, 자치단체는 중소기업지원의 유형인 인력양성, R&D, 정보화, 해외 마케팅 자금지원 등의 지원유형을 재배열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우배 외(2011)의 연구에서는 기업지원서비스 강화 방안으로 글로벌시장 개척지원 사업과 수출교육전문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지역내 수출기업 클러스터지원사업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진 외(2015)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수출기업의 영세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산업특성, 재화특성, 기술적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중소수출기업의 대형화를 추진함으로써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필요하며, 무역 전문 인력에 대한 효율화 방안으로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사업을 편성하여 무역인력교육 및 지역 중소수출기업 연계형태의 교육과 취업 지도에 대한 방안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정대철(2013)에 따르면 중소기업 및 자원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통상 산업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추진기관이 필요함을 밝히고 있다. 이는 전국의 광역자치단체가 자გი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별도의 지역경제진흥원이 설립되어 정책추진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와 차별화된 수출주도의 지역경제 특성에 부합하도록 하는 기관을 설립하여 수출을 주도

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표 3> 선행연구 정리

구분	내용	연구자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수출지원체계에 대한 국가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li> <li>○ 기관들의 지원사업에 대한 전문화와 경쟁을 통한 중소기업 수출 지원의 효율성 제고</li> </ul>	이성봉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의 창업부터 성장, 발전까지 지원하면서 성장 단계별로 조정이 필요함을 제시</li> <li>○ 지역산업특화 등 전략적 산업육성이 필요</li> </ul>	신열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내 수출기업 클러스터지원사업 등이 필요</li> </ul>	이우배 김성권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역 전문 인력에 대한 효율화 방안으로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사업을 편성하여 무역인력교육 및 지역 중소수출기업 연계형태의 교육과 취업지도에 대한 방안이 필요</li> </ul>	이상진 김형철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별화된 수출주도의 지역경제 특성에 부합하도록 하는 기관을 설립하여 수출을 주도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li> </ul>	정대철 (2013)

### Ⅲ. 제주지역 수출입 현황

#### 3.1. 제주지역 수출입 현황

제주지역의 제조업은 전국대비 0.1% 밖에는 없는 실정으로 많은 수출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제주지역의 수출은 주로 수산분야인 넘치와 모노리식집적회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제주지역 수출은 2014년 보다 11.3%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금액은 118백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수입은 2015년이 2014년 대비 2.9% 증가한 US\$ 334백만 달러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른 무역수지는 216백만 달러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 제주지역은 수출보다는 수입이 많은 지역으로 수입구조는 관광상품 위주의 소비재가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표 4> 제주지역의 수출입실적

(단위 : 천달러, 전년동기대비 %)

구분	2014년			2015년		
	1-6월	7-12월	연간	1-6월	7-12월	연간
수출액 (증가율)	49,018 (6.3)	57,396 (0.4)	102,415 (3.0)	51,993 (6.1)	66,454 (15.8)	118,447 (11.3)
수입액 (증가율)	140,553 (19.9)	184,980 (29.4)	325,533 (25.1)	163,615 (16.4)	171,358 (7.4)	334,973 (2.9)
무역수지	91,535	127,584	219,118	111,622	104,904	216,526

자료 :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

최근의 월별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6월 기준으로 2015년 6월 대비 제주도의 수출은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수입은 2016년 6월 기준으로 2015년 6월 대비 3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무역수지를 살펴보면 14,059,000달러가 적자로 나타나고 있어 수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주도는 전국 대비 수출규모가 아주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국 대비 제주도의 수출은 0.02%로 아주 미미한 수준이며, 수입도 전국대비로 본다면 0.08%로 높지는 않으나 수입이 수출보다 많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표 5> 제주지역 2016년 6월 수출입 동향

(단위: 천달러, %)

구분		2015. 6월		2016. 6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수출	제주	11,117	35.7	11,365	2.2
	전국	46,554,512	△2.7	45,292,766	△2.7
	비중	0.02	-	0.02	-
수입	제주	37,440	△83.9	25,424	△32.1
	전국	36,598,398	△13.8	33,795,330	△7.7
	비중	0.10	-	0.08	-
수지	제주	△26,323	-	△14,059	-
	전국	9,956,114	-	11,497,436	-

자료 :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

주: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 3.2. 제주지역 품목별 수출입 동향

제주지역의 수출입을 살펴보면 1차 상품 수출이 1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주지역의 수출은 주로 1차 상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이러한 수출구조가 점차 변화하여 2016년 금액기준으로 1차 상품 29,199,000 달러와 공산품 32,688,000 달러로 구조가 변화를 하고 있다. 수입의 경우 1차 상품과 공산품이 17.8%, 17.4%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lt;표 6&gt; 1차산품과 공산품의 수출입 동향

(단위: 천달러, %)

구분	2014.1-6월		2015.1-6월		2016.1-6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수출	49,018	6.3	51,991	6.1	61,887	19.0
1차산품	33,307	△12.5	26,458	△20.6	29,199	10.4
공산품	15,711	95.3	25,533	62.5	32,688	28.0
수입	140,553	19.9	163,615	16.4	192,244	17.5
1차산품	44,450	13.6	43,828	△1.4	51,649	17.8
공산품	96,102	23.1	119,787	24.6	140,595	17.4

자료 :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

주: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제주지역 품목별 수출입 동향을 살펴보면 모노리식집적회로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모노리식집적회로는 제주수출에서 2014년부터 제주지역 공산품 수출품으로 지속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금액으로 보았을 때도 2015년 상반기 16,113,000 달러 증가한데 이어 2016년 상반기 17,215,000달러로 가장 높은 수출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제주지역에서 신규수출품목으로 공산품인 차량용펌프와 사출식 금속주형 등이 신규수출품목으로 수출이 되었다 이밖에 제주 특산물로는 넉치류, 생수, 감귤농축액 등이 수출을 주도하고 있다.

<표 7> 주요 품목별 수출 실적

(단위: 천달러, %)

순위	품목명	2015.1-6월		2016.1-6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전체실적		51,991	6.1	61,887	19.0
1	모노리식집적회로	16,113	168.9	17,215	6.8
2	넙치류	11,331	△1.4	11,461	1.1
3	차량용펌프	-	-	4,236	0.0
4	소라	2,836	△16.8	2,557	△9.8
5	사출식금속주형	-	-	1,839	0.0
6	생수	1,423	15.1	1,580	11.0
7	기타	-	-	1,181	0.0
8	감귤농축액	975	△63.1	1,152	18.2
9	파프리카	645	△79.7	1,008	56.3
10	전복	256	△22.1	902	252.8

자료 :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

주: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 3.3. 국가별 수출 동향

#### 3.3.1 수출동향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2016)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수출품목과 수출국에서 공산품 수출국가가 많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산품 수출국가로는 중국의 경우 모노리식집적회로 3,393,000 달러, 사출식금속주형 1,839,000 달러, 기타 1,181,000 달러, 폴리스틸렌 382,000 달러 등의 수출이 늘어 전년 동기대비 207.4% 증가하였으며 이들 공산품이 전체 수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수출 4위국인 미국의 경우 기존 수출품인 조각공예품 △71.4%, 생수△

22.7%가 감소한 반면 넉치류 4,060,000 달러, 14.1%, 차량용펌프 2,645,000 달러, 무 575,000 달러, 36.1%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차산품의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넉치류  $\Delta$ 3.9%, 소라  $\Delta$ 10.0%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감귤농축액 1,152,000 달러, 전복 895,000 달러, 복조기 817,000 달러 등의 수출이 증가를 하였으며, 사출식금속주형 592,000 달러, 키워 546,000 달러 등의 신규 수출이 증가하였다.

대만의 경우 모노리식집적회로 830,000 달러와 태국도 모노리식집적회로 1,055,000 달러, 인도는 차량용펌프 699,000 달러, 홍콩은 모노리식집적회로  $\Delta$ 24.7% 등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제주지역 수출품으로 공산품이 1차 산품보다 높은 수출을 기록하고 있어 제조기반의 수출전략이 필요함을 볼 수가 있다.

<표 8> 주요 품목별 수출 실적

(단위: 천달러, %)

순위	품목명	2014.7월		2015.7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전체실적		51,991	6.1	61,887	19.0
1	일본	16,658	31.4	18,837	13.1
2	홍콩	13,373	106.6	11,029	17.5
3	미국	6,743	20.4	9,077	34.6
4	중국	2,857	24.9	8,783	207.4
5	독일	2,818	381.0	2,783	1.3
6	대만	1,607	8.8	1,934	20.3
7	태국	875	28.8	1,657	89.5
8	베트남	1,517	155.7	1,008	33.6
9	인도	123	1,253.8	929	656.8
10	싱가포르	245	8.7	720	194.1

자료: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

주: 증감률은 전년동기 대비

### 3.3.2 수입동향

2016년 상반기의 수입동향을 살펴보면 내수용의 수입이 증가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내수용이 수입 증가 주도한 것으로 수출용 696,000 달러 0.2% 감소하였으며, 내수용 191,548,000 달러 1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비재가 전체 수입의 52% 점유하고 있으며, 원자재 30,897,000 달러 52.5% 증가하였고, 자본재 59,854,000 달러 27.3% 증가하였다. 품목별로 수입 동향을 살펴보면 항공기용엔진, 스카시위스키, 향수, 립스틱, 담배 등은 증가, 기초화장품, 다이오드, 사료용 옥수수, 메이크업화장품은 감소하였으며, 자본재인 항공기용엔진을 제외하면 대부분 소비재가 주요 수입 증가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9> 주요 품목별 수출 실적

(단위: 천달러, %)

순위	품목명	2014.7월		2015.7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전체실적		163,615	16.4	192,244	17.5
1	항공기엔진	16,453	0.0	35,543	116.0
2	기초화장품	22,065	2.6	19,729	△10.6
3	스카시위스키	7,204	△23.1	7,616	5.7
4	향수	6,313	14.9	6,808	7.8
5	립스틱	4,415	37.1	5,799	31.4
6	다이오드	6,125	289.0	5,628	△8.1
7	사료용옥수수	8,567	9.9	4,703	△45.1
8	담배	3,456	251.3	4,503	30.3
9	메이크업화장품	4,177	12.5	4,134	△1.0
10	유박	1,774	△69.6	3,551	100.2

자료: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

주: 증감률은 전년동기 대비

## IV. 수출활성화를 위한 정책

### 4.1. 전국 지자체별 수출지원 정책

우리나라는 정부기관과 무역유관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무역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 2015년 기준으로 자치단체별로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충청북도가 35개 분야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가장 많은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라남도가 33개 분야, 제주특별자치도 32개 분야의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 전국에서 3번째로 정책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각 지역의 수출지원 정책을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별로 상이하게 지원은 하고 있으나 그 지원내용은 유사하며, 총 321개 사업이 진행 하였다.

<표 10> 2015년 자치단체별 추진 지원정책

기관명	비중	기관명	비중
서울특별시	9건/3%	강원도	13건/4%
부산광역시	14건/4%	충청북도	35건/11%
대구광역시	21건/6%	충청남도	18건/6%
인천광역시	12건/3%	전라북도	10건/3%
광주광역시	19건/6%	전라남도	33건/10%
대전광역시	13건/4%	경상북도	23건/7%
울산광역시	21건/6%	경상남도	13건/4%
세종특별자치시	8건/2%	제주특별자치도	32건/9%
경기도	27건/8%	총	321건/100%

## 4.2. 무역활성화 정책지원의 문제점

### 4.2.1 제조업 기반 부족 구조

우리나라의 무역주도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출 진흥 정책은 무역보협을 제외하면 마케팅 내용이 대부분 차지 하고 있고 있으며, 이는 수출 활성화에 즉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마케팅과 무역금융 위주의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어 문제점이 도출된다(데일리안, 2015, 7.). 그러나 제주도의 경우 전국을 기준으로 해도 제조기반이 취약한 실정으로 무역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부족하다. 따라서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조기반 및 가공산업육성을 통한 제조기업을 양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4.2.2 전문성의 부족

산업연구원(2014)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경우 별도기관을 통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93.9% 이고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사업 비중이 높은 것으로 밝히고 있다. 분야별 산하 및 유관 지원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자치단체는 오히려 지원 사업을 중앙의 전문 지원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지원내용이 갖는 전문성과 특수성이 결여됨으로 정부유관기관으로 위탁을 하는 결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모든 수출정책을 총괄하여 추진할 집행기구의 역할이 필요한 실정이다.

### 4.2.3 무역전문인력의 부족

제주도의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사업체수 고용, 부가가치 측면에서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그러나 중소기업 부문은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효율성과 생산성이 급격히 저하되는 것은

중소수출기업의 사회적 인식을 개선도 필요하지만 체계적인 전문 인력의 공급에 대한 문제가 도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 공급측면에서 단장기 교육을 지원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 4.3. 제주도 무역 정책의 효율화 방안

#### 4.3.1 제조기반 기업을 육성

제주지역은 365개 중소제조기업이 존재하지만 전국의 0.3%의 비중만을 차지할 뿐이다. 이는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제주도의 특성이 관광에 치우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제주지역의 산업이 관광과 연계된 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수출 성과는 높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제주도의 수출에서 공산품에 대한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제주지역을 기반으로 제조산업의 육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족한 제조업 기반을 육성하기 위한해서 제조기업기반으로한 제주특성에 맞는 농산물 및 수산물 가공산업부터 공산품까지 다양한 업종이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제주지역의 제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복합산업단지 구축을 통해 제조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 4.3.2 수출 활성화를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

제조기업을 지원하기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제주지역에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유관기관은 많이 존재하고 있지만 중복된사업과 관광산업을 치중하고 있어 수출만을 전담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이는 창업부터 제품개발, 해외마케팅, 수출계약, 수출통관, 대금결제까지의 수출에 대한 전과정을 도와줄 수 있는 지원기관의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실제 중소기업은 제품과 관련 복잡한 수출 절차를 인지하지 못해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수출 하려 하지만 FTA 등 다양한 절차를 이해하지 못해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수출의 기초단계부터 최종 대금결제까지 지원하고 상담할 수 있는 가칭 “제주도 기업지원 수출 센터”와 같은 컨트롤 타워가 요구된다. 지원사업은 제조기업의 모든 업무를 상담하고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 4.3.3 제주도 기반의 특성화 인력 양성

제주도의 현실은 관광산업에 취약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대학졸업자가 타 도시로 취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 제주지역의 인력을 활용하여 제주지역의 수출산업 인력으로 하기위해서는 제조업기반육성과 지역대학의 무역학과를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제주도의 지역인력을 기반으로 수출전문인력을 활용한다면 제주도의 수출활성화 뿐만 아니라 제주지역대학의 발전도 함께 이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수출을 위한 컨트롤타워에 제주지역 대학과 대학에서 배출된 수출전문인력을 활용한 다면 제주도의 자급률이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제주지역 수출기업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제주지역 대학을 통해 한다면 제주지역을 잘 알고 있기에 효과는 증대 될 것이다.

## V. 시사점

제주지역은 오래전부터 수출을 위한 기반보다 관광자원이 활성화 되어 있어 전체적인 수출이 부진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 한다면 제조기업을 육성하고 수출을 위한 컨트롤타워구축은 제주지역의 수출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 될 것이다.

제주도의 수출품목은 대부분 농수산물로 수출구조였으나 현재는 공산품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제주도의 무역진흥정책을 타 시도와 비교함으로써 운용방향을 모색하고 제주도 무역활성화를 통한 해외진출 촉진으로 제주경제의 역동성 제고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

는 2015년 제주도의 무역현황을 분석 후 무역진흥의 문제점 및 효율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주지역의 중소기업이 전국대비 0.3%에 해당하는 만큼 수출을 위한 제조기업 육성은 중요하며, 이렇게 육성된 제조기업이 수출을 달성하기 위해 육성 과정부터 컨트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가칭 “제주도 기업지원 수출 센터”이다. 또한 전문인력을 배출하기 위한 지역 대학의 활용이 더해진다면 모든 것을 제주도내에서 이룰 수 있어 그 효과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주도의 수출정책을 가칭 “제주도 기업지원 수출 센터”에 일원화함으로써 전문적인 수출기관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제주도의 수출을 활성화 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제주지역의 수출을 진흥하기 위하여 연구를 진행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시 방안을 실행할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 된다.

## 참고문헌

- 고희채, 오민아, 이보람, “미국의 중소기업 수출확대 정책 및 시사점”, 대외경제연구원, 1-70, 2011.
- 산업연구원, 「중소기업 수출지원 체계 효율화 방안」, 2014.
- 산업통상자원부, 「2015년도 무역·통상진흥시책」, 2015.
- 신 열(2014). “한국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실태분석”, 한국정책연구, 14(4).
- 이상진, 김형철, “중소수출기업의 정책지원 효율화 방안에 대한 연구”, 관세학회지, 16(3), 2015.
- 이성봉,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지원체계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질서경제저널, 16(1), 2013.
- 이성봉, “한국과 일본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체계정비에 관한 비교연구”, 질서경제저널, 16(4), 2013.
- 이우배, 김성권, “중소수출기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및 수출 애로요인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지역경제연구, 19, 2013.
- 임준형, “광주지역 중소기업 수출지원정책의 우선순위와 수출마케팅 활성화 방안”, 무역통상학회지, 13(3), 2013.
- 정대철, 「수출환경변화와 경남의 수출지원 기능제고 방안」. 경남발전연구원, 2013.
- 최기일, 문병진, 정종희, 유진우, “창조경제 신성장동력 방위산업 육성을 통한 방산수출 활성화 및 방산중소기업 지원방안 연구”, 한국방위산업학회지, 21(2), 2014.
-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수출통계.
- 산업통상자원부.
- 연합뉴스, 2014 10.
- 데일리안, 2015, 7.

## **A Study on Efficiency seeking for trade promotion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ee-Cheol Kim

---

### **<Abstract>**

---

Jeju region of small and medium-sized manufacturers around the country as equivalent to 0.3 % Enterprises is important and manufacturing for export, From the process of fostering export companies manufacturing be fostered to achieve this control will required to be able to do.

This study is required progress to study and promote exports of Jeju. The need to implement a plan to suggestion presented in this study, therefore, that sufficient food.

---

Key words: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Exporters, export promotion policy,  
Education, Trade training